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실뱀장어 불법 조업 예방 나선다

전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9개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발표

전북도가 '2021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과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6개 기업을 심사해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향후 인증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등을 평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지정된 9개 기업은 일자리창출, 마케팅, 판로지원 등 재정지원(공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인프라 지원 등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도 발표했다. 전북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참여근로자의 고용유지,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의 필요성, 신청내용의 시행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인건비) 분야는 30개 기업, 108명이 신청한 가운데 72%인 78명을 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과 신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4월 초 공모할 제2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이번 심사에서 2021년도 사업비 7억1000만원을 전액 지원했으며, 인프라 지원의 경우, 중복지원 및 사업계획 미비 등을 제외하고 신청금액의 81.5%인 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행지침 또는 지원요청 등을 위반할 경우 약정해지 및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내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 등 후속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

전북도가 최근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나날이 가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워, 이 시기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해 양식한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2~5월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실뱀장어의 거래 가격이 높아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조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선 50여척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조업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의 금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온라인 어린이 체육관' 운영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놀이체육 프로그램 개발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과 균형 잡힌 성장 발달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은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놀이체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온라인 어린이 체육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어린이 체육관'은 집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4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비대면

놀이체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 문을 열게 된다. 일반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창의체험관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체육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학인프라사업단장 이상행 교수)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단

기별 맞춤형 놀이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신체적 발달을 돕고 정서적 안정감, 부모님과의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도 온라인 어린이 체육관을 활용해 실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사전 방지

도, 수급자·배우자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시·군별 조사 실시

전북도가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해 기초연금 수급권 등 변동여부를 조사하고,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기초연금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유기적 협업체제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연중 조사하며, 4월은 공적소득·재산확인, 직역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 기간이다. 이 외 중점관리 분야로 ▲사실(이)혼 관계,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확인,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인 수급자격은 대상자 출생일의

전월에 연 1회 확인한다. 아울러, 거주 불명등록 수급자 확인은 월 1회, 고령 수급자 확인은 연 1회 실시한다. 2021년도 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29만2,700명으로 총 예산액이 9,988억원(국비 85.2%, 도비 3.0%, 시군비 11.8%)이며, 지난 2월까지 도내 어르신 75%인 29만1,527명에게 지급됐다. 올해부터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연금액을 소득 하위 70%(2020년 40%)까지 확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2021년 2월 지급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10% 증액된 790억 원이었다. 김현욱 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안전 결의대회 개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29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무재해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도시 조성공사의 전 단계로, 총 1,22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0.46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총 4,026㎡의 준설과 매립을 시행한다. 작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부지 진입로를 개설 중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사, 새만금개발청, 원·하도급사 및 현장 근로자 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관계자가 합심해 안전 결의문을 제창하고,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팔문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본 사업현장 전체에 걸쳐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29일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무재해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염소 농가 구제역 일제접종

전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52만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소 9,000농가 41만3,000마리, 염소 2,000농가 10만7,000마리가 대상이다. 이번 일제접종에는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농가는 전문가인 수의사를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와 양돈 농가는 농장주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일제접종 완료 후, 4주가 지나면 구제역 접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 검사에서 소의 경우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1개월후 재검사 등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